10~1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 광주 평화연극제

## 첫 야외 공연 등 다양한 변화 시도
## 일본 극단 바람 등 12개 극단 참여

일본 극단 바람 '시라누이가 타오르며'

광주평화연극제는 지역에서 열리는 공연 관련 행사 가운데 자기 정체성이 가장 뚜렷한 프로그램 중 하나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정순기)가 주최하는 2013 광주평화연극제가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과 문화관 주변 야외에서 열린다.

주최측은 올해 예산이 지난해 7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프로그램 구성에 애를 먹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야외공연을 시도하는 등 변화를 모색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평화희곡상을 공모, 당선작을 지역극단이 무대에 올리는 등 평화연극제를 통해 지역에서 지속공연 가능한 콘텐츠를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주제는 '길위에서 오월을 보다!'로 정했다. 일본 극단 '좌 레라'를 비롯해 서울·대구·부산·광주 등에서 모두 12개 극단이 참여했다.

▲6개 극단의 주제 공연

올해 주제 공연 참가작 중 5월 광주를 직접적으로 다룬 작품은 두편이며 여타 극단들은 다양한 소재로 평화를 이야기한다. 세 개의 극단이 20~30분짜리 단막극을 통해 들려주는 각기 다른 이야기에 주목하며 즐기면 된다.

14일 야외공연으로 진행되는 주제공연에는 3팀이 참여한다. 부산 극단 '공간 아트컴퍼니'는 '별바라기'를 무대에 올리며 대구 극단 '한울림'은 '5월의 신부'를, 광주의 '푸른연극마을'은 '하늘 가는 길'을 선보이다.

15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는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문화창작집단 '날'(서울)의 '아버지의 유산', 극단 'UP씨어터'의 '다른 시선', '얼·아리'의 '우린 여기서 너희는 거기서'가 공연된다.

■ 2013 광주 평화연극제 일정

| 작품명 | 일시 | 장소 | 극단 |
|---|---|---|---|
| 드라마 with 광주 | 10일 오후 7시30분 | 야외 | 연극협회 합동공연 |
| 영종도 38㎞ 남았다 | 11일 오후 7시30분 | 빛고을 시민문화관 | 서울극단 필통 |
| 사람을 외치다 | 13일 오후 7시30분 | 빛고을 시민문화관 | 심리극단 엔카운터 |
| 오월의 신부 등 | 14일 오후 7시30분 | 야외 | 아트컴퍼니, 한울림, 푸른연극마을 |
| 실내 주제공연 | 15일 오후 7시30분 | 빛고을 시민문화관 | 문화창작집단 날, UP씨어터, 얼·아리 |
| 보이는 라디오 극장 (감자·오발탄 등) | 16일 오후 7시30분 | 야외 | 극단 DIC, 예린,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
| 시라누이가 타오르며 | 17일~18일 오후 7시30분 | 빛고을 시민문화관 | 일본극단 바람 |

# 오월을 본다, 극 속에 자연스레 녹아든다

▲개막공연·라디오 극장

개막공연 '드라마 with 광주'(10일 야외공연)는 브레이트의 '억척어멈', 이오네스코의 '의자들', 세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 등 세계 유명 작가들의 희곡을 광주의 과거, 현재, 미래로 재구성해 풀어냈다.

16일 열리는 야외 축하공연에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극단 'DIC', '예린', '크리에이티브 드라마'가 소설 '감자', '오발탄', '벙어리 삼룡이'를 다양한 형식의 낭독 공연으로 선보이는 '보이는 라디오 극장'이 공연된다.

▲특별초청공연

지난해 평화연극상 수상팀인 극단 '필통'은 11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영종도 38km 남았다'를 공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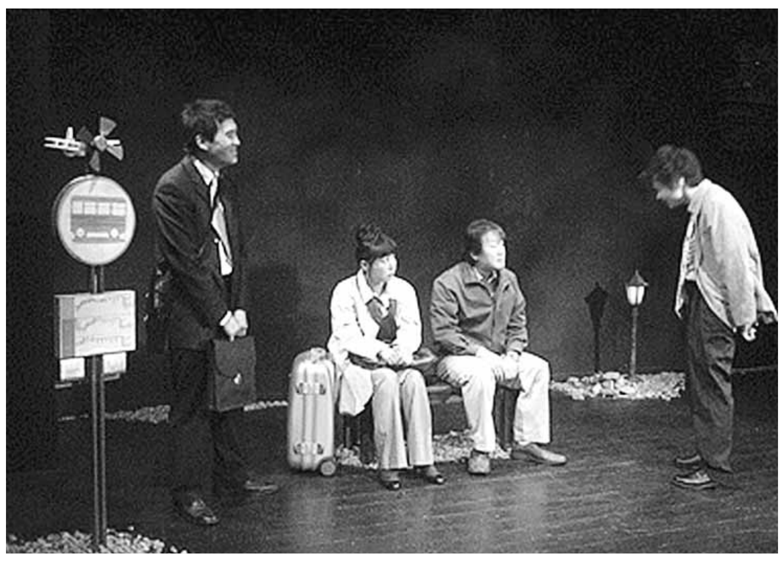
술에 취하면 늘 집 근처 정류장에서 공항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삼십대 후반의 나과장을 중심으로 시인, 목사, 형사, 탈주범 등 다양한 인간군상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일본 극단 '바람(좌 레라)'의 '시라누이가 타오르며'(17~18일 빛고을시민문화관)도 공연된다. 1956년 일본을 배경으로 미나마타병에 걸려 고향으로 돌아온 '료코'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부를 좇다 병들어가는 인간과 공동체의 문제를 돌아보게 한다.

또 심리극단 '엔 카운터'는 심리극 '사람을 외치다'(13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을 통해 상처받고 억압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보듬는다.

오성완(푸른연극마을 대표) 평화연극제 예술감독은 "궁극적으로 평화연극제는 야외 무대가 어우러진 로드페스티벌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에 올해 처음으로 야외공연을 도입했다"며 "이번 참가작 중에는 시민들이 자연스레 작품 속에 녹아들 수 있는 게 많아 관객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중·고생 1만원. 문의 062-523-7292.

/김미은기자 mekim@



극단 필통 '영종도 38km 남았다'

# 박효선의 희곡은 5월 정신계승

## 문화평론가 김도일씨 '박효선 희곡에 나타난 주제의식 연구' 발표

故 박효선

'오월 광대' 고(故) 박효선. 문화운동 1세대인 그는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항쟁지도부에서 홍보부장으로 활동했고, 지난 1983년 도피생활을 끝낸 후 극단 '토박이'를 창단한다. 이후 '금희의 오월', '모란꽃', '청실홍실' 등 이른바 '오월 3부작'을 무대에 올리는 등 치열하게 광주 오월을 이야기 해왔다. 누구보다 광주의 오월을 소재로 많은 작품을 쓴 작가이자 연출가이기도 하다.

5·18 광주민중항쟁 33주년을 맞아 고 박효선의 희곡 세계를 분석한 논문이 나왔다.

문화평론가 김도일(51)씨가 쓴 논문 '박효선 희곡에 나타난 주제의식 연구-희곡집 금희의 오월을 중심으로'가 한민족어문학회가 발간하는 '한민족어문학'(韓民族語文學) 제63집에 실렸다.

이 논문은 고 박효선의 희곡집 '금희의 오월'에 실린 희곡 5편에 나타난 주제의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분석한다.

'자아성찰과 자기극복을 위한 기억의 재현'에서는 박효선이 5월 항쟁을 겪고 도피하던 시절의 체험을 쓴 '잠행'을 살피고, '진실과 역사의 이면'에서는 전남대생 이정현군의 5월 항쟁 활동과 가족을 모델로 삼은 '금희의 오월',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주인공 문부식과의 면담을 통해 쓴 '부미방'(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약칭)을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1980년 5월은 현재 진행형'에서는 전남대 오수성 교수의 심리 극본을 가필 수정한 '모란꽃'과 그의 마지막 작품인 '청실홍실'에 나타난 주제의식을 살핀다.

김씨는 박효선이 1988년 '금희의 오월'을 무대에 올릴 당시 놀이패 '신명' 대표로 연극 '일어서는 사람들'을 공연하기도 했다.

'금희의 오월'과 '일어서는 사람들'은 당시 서울 미리내 소극장에서 열린 제1회 전국민족극한마당에 초청돼 호평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전국 순회공연을 했다.

김도일

김씨는 "박효선의 연극 활동은 5월의 순수성을 지키고 5월 정신 계승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그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져 가고 있다"며 "브랜드공연 축제 등 광주 정신을 바탕으로 한 많은 공연들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의 예술관과 연극 활동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2차 정책토론회… 8일 광주시의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하 교류재단)과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는 8일 오후 3시 광주시의회 예결산특위실에서 '문화전당 운영과 콘텐츠, 그리고 광주의 미래'를 주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문화재단, 광주발전연구원, 시민문화단체, 학계 등 지역 문화거버넌스 주체들이 함께하는 자리다.

송진희 호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영철 아시아문화개발원장과 류재한 전남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 뒤에는 임영일 광주시 문화수도정책관, 홍인화 광주시의회 행자위원장, 김성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김재철 광주발전연구원 사회문화실장 등의 토론이 이어진다.

교류재단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개제안서를 발송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대인예술시장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사업자에 광주대 산학협력단 선정

대인예술시장과 예술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우선협상대상자로 광주대 산학협력단이 선정됐다.

광주문화재단는 최근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 프로그램 운영 사업자 평가위원회를 열고 입찰에 응한 4개 사업자 가운데 1순위로 '광주대 산학협력단', 2순위로 '교육문화공동체 결'을 선정했다.

광주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예술의 거리 프로젝트를 담당하면서 추진한 아트경매, 궁동예술제, 다양한 시민체험 프로그램이 결합한 궁동미디어숲 등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대인시장 상주 작가들이 활동중인 '아트스페이스 미테-우그로', 문화예술 관련 기획사업 등을 추진중인 '아우라코리아 협동조합'과 컨소시엄을 형성, 입찰에 지원했다.

한편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 프로그램은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해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거점 마련 사업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